

# 웨이사 월간지\_2020년\_06월호 포스트 코로나 섹터 대장주\_비트컴퓨터(032850)

작성자: 뎡기왕자

\*월간지 6월호는 09PAGE부터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0년04월호



=>3월까지의 코로나 관련주(마스크->진단키트->치료제)가 움직였고(증시와 반대), 4월부터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가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코로나 관련주는 4월초에 금융시장에서만큼은 이미 죽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4월초부터 계속 비트컴퓨터를 헬스케어 섹터 대장주다, 라고 강조드린 이유는 이 움직임을 봤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 정점 이후를 의미합니다. 코로나와 동행하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비대면, 원격의료, 원격회의, 온라인결제, 온라인유통 등을

통한 시대입니다.

=>한국이 사재기가 없었던 이유는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만 있어도 뭐든지 집 앞으로 배달을 해주는 민족...

=>이런 상황에서 방역 활동(K-방역)도 계속 되어야 됩니다.

=>결국 키워드는 비대면 산업쪽에서 발전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 초만 하더라도 관련 뉴스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쪽 뉴  
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 산업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는 정부 정책입  
니다.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이쪽을 지원할 수 밖에 없고,  
이쪽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민주당이 대선 전에 자랑할 수 있는 섹터에 정책의 에너지를 집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모델화 시킬 수 있는 국가가 바로 대  
한민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파생되는 산업들이 K-헬쓰케어이고, 한국 정부의 국  
가정보화(헬쓰케어)시스템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하면서 여대야소를 만들었고, 남은 과제는  
대선을 이기는 것입니다.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정책 성과를 계속해서 과시하  
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정책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코로나 방역입니다.

=>방역 과정속에서 진단키트(씨젠) 규제완화를 통해서 이 산업을 세계  
적인 산업을 키우면서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씨젠은 이미 주가가 분양이 되면서 시세가 끝났습니다.

=>이제 제2의 씨젠으로 포스크 코로나 대장주로 비트컴퓨터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주가 고점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신규매수는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다음 대선까지 제일 잘한 것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트럼프가 작살나는가? 트럼프 이번에 재선 안 될 가능성이 높습

니다. 미국 민심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지식도 없고, 개념도 없고, 헛소리만 했습니다. 아베도 조만간 물러납니다. 역시 코로나 방역 실패입니다.

=>둘 다 모두 의료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당장의 경제 성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중에 방역을 제일 잘한 나라가 다행히도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전 세계 1등입니다.

=>정책 성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코로나 방역에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을 지원하고, 이슈를 만들고, 홍보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내수주에 머물렀던 기업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겁니다.

=>앞으로 국제 표준기구에 ISO에 방역 관리 모델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역 시스템, 긴급 승인 제도 시스템 등등... 세계적인 표준이 됩니다.

=>방역하면 대한민국이 됩니다. 방역 시스템, 헬스케어 정보, 서버, 클라우드, 플랫폼 시스템, 다 수출합니다.

=>그 뒤에 헬스케어, 바이오 소재, 부품, 장비까지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도섹터는 포스트 코로나(코로나와 동행)에 언택트 관련, 방역 관련, 민주당 정책(성과가 나올 수 있는->대선 홍보 수단)이 됩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탄지를 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책 에너지를 집중할 것입니다.

=>정책에는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정책이 있고(메가트렌드에 부합), 성과는 없지만 순수 이슈, 홍보용 정책이 있습니다.

=>순수 이슈, 홍보용 정책이 바로 남북경협입니다.

=>비트컴퓨터가 속해있는 섹터는 바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적어도 6월~7월 정도까지는 정책주들의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부터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IT반도체, 전기차 섹터도 경기 회복과 함께 주가가 다시 올라올 겁니다. 이쪽 섹터는 6월까지의는 빨리 안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IT반도체, 전기차 등 <경기관련주>는 올해 하반기를 이끌 주도섹터가 될 겁니다.

=>상반기는 <정책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1등 대장주가 바로 비트컴퓨터입니다.

=>대장주의 조건은 업계 1등의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드와 맞아야 되고, 당연히 미래에 기대되는 실적이 우수해야 되며 차트 상으로는 증시보다 먼저 전고점을 돌파해 있어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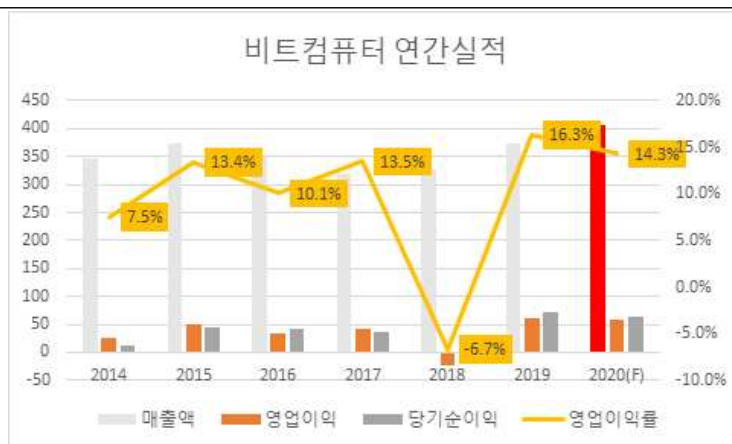
=>약세장은 워런버핏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약세장은 가치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강세장은 워런버핏이 자산증식을 하는 장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과거 실적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미래에 얼마나 실적을 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 정부 정책의 속도 등이 중요합니다. 실적은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이미 주가가 무릎을 통과하여 골반까지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기업분석보다는,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더 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레포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간실적

연간실적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F)	2021(F)	18대비	19대비
매출액	347	373	348	319	328	374	406		14.0%	8.6%
영업이익	26	50	35	43	-22	61	58		흑자전환	-4.9%
당기순이익	13	46	42	36	-2	71	64		흑자전환	-9.9%
영업이익률	7.5%	13.4%	10.1%	13.5%	-6.7%	16.3%	14.3%	#DIV/0!	흑자전환	-12.4%



=>2020년 추정 실적은 조만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미 없습니다.

=>원격 의료가 실행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의사들이 동의하겠느냐? 앞으로 장애물이 많은데,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의사들이 동의하고, 장애물이 사라지면 이미 주가는 끝나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늘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섹터가 만들어질 때,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쪽 좋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돌 때면 주가는 이미 저 멀리 올라가 있을 겁니다.

=>주가가 지금처럼 빨리 올라가면 시세가 단기에 끝날 것이고, 천천히 조정을 해주면서 올라간다면 좀 더 긴 기간동안 주가가 더 오래 갈 것입니다. 그것은 뭐 지금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계속 지켜봐야겠죠.

=>적어도 여름장까지는 비트컴퓨터가 포스트 코로나 대장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미래 추정 실적과 PER을 통한 목표가 산정이 의미가 없는 시점(새로운 섹터 탄생 구간)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규제가 완화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실적이 미래에 잡힌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주가 15,000원까지는 보입니

다. 주가가 단기에 급등해버리지 않고 천천히 간다면 최대 주가는 25,000원 까지도 보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10,500원이 넘어가면 매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주가의 위치가 골반 위로 넘어가버리면 그때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 ♣기술적분석



=>텔레그램에서 처음 언급드렸던 6,500원대가 딱 첫 상승 이후 놀림 목 자리였기 때문에 가장 매집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일봉상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지 봐야 됩니다. 지금은 누구도 비트코인의 주가가 얼마나 더 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시장이 커질지, 얼마나 정부의 정책 지원이 이어질지, 규제완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미지의 영역을 주가가 달리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매우 우수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깐 기본적으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추세를 봐야됩니다. 왜냐하면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가치투자로 접근해버리면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섹터, 새로운 대장주의 시세를 끝까지 주식을 들고가기가 어렵습니다.

=>10,000원 이전에 매수를 한 분들은 계속 보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

### ♣♣♣2020년05월호

=>원격 의료가 의사분들 죽이려고 하는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 政, 원격의료 전방위 드라이브... '의사-의료인' 협진수가도 지원

고신정 기자 ks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26 16:38 | 댓글 0

연말 '원격협진 수가 신설' 후속조치... 협진기관 자문료 본인부담 면제  
원격협진 의뢰기관 수가 현행 '재진료'·'자문기관 수가는 '초진료 2배'

려 과거보다 시장이 커지면서 더 큰 소득이 보장될 수도 있습니다.

### 월간지(퀘이사)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현재 기업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휴젤, 뉴웍스, 휴온스, 리메드입니다. 다 좋은데, 대장주 하나를 선택해서 4월에 레포트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리메드가 가장 유력합니다.

177 오전 11:44

=>3월31일자 텔레그램 내용인데, 당시 코로나 이후 세상을 봤을 때, 원격의료의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했고, 가장 먼저 정책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비트컴퓨터에 대한 기업분석은 코로나 이전에 이미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3분기부터 실적이 턱어라운드되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입니다.

### 월간지(퀘이사)

그쪽이 아니라 원격진료, 원격교육, 빅데이터, 인공지능 섹터(헬스케어)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판세를 읽고 있습니다.

200 오후 4:25

### 월간지(퀘이사)

크게 보면 언택트(비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그동안 관련 섹터의 여러 종목들을 분석했었는데, 헬스케어 섹터 대장주는 '비트컴퓨터'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4월까지 주가가 단기에 크게 급등하지만 않는다면 4월호에 레포트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 오후 4:28

### 월간지(퀘이사)

코로나 선행국가인 중국, 한국은 이미 돌아섰고, 코로나 동행국가인 유럽은 정점을 통과했고, 미국은 정점을 통과하려고 있고, 코로나 후행국가들은 코로나가 창궐하든 말든 금융시장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198 오후 4:37

=>원격의료 시장이 언젠가는 열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전염병 바이러스로 열리게 될 줄은 전혀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투자의 방향도 늘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도 많죠.



=>아무튼 4월20일부터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장주>로 비트컴퓨터를 선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곧 <21대 국회의원 임기>기 시작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정책 관련 섹터 종목의 주가가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책에서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중요하게 다룰 주제는 바로 원격입니다.

=>따라서 비트컴퓨터의 주가가 5월 중순부터 약 2주간을 쉬었는데, 다시 움직일 준비를 시작한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 ♣기술적분석



=>역시 차트를 보면 1등 대장주의 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의 대세상승이 상당히 안정감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업은 실적대비 저평가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정책 주=새로운 시장 개화) 사실 지금 실적 분석은 무의미합니다.

=>향후 원격의료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한국 의사들이 기초적인 것은 해외 환자들도 원격으로 진찰할 수 있게 됩니다. 원격의료라는 새로운 시장 자체가 엄청 커지는 겁니다. 주가는 바로 그 <새로운 시장 개화>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 실적은 측정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번에 주가 고점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좋은 뉴스가 들리든지 말든지 과감히 매도하고 새로운 주도 섹터로 이동할 생각입니다.

=>의사들이 지금 당장 반대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열린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미래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버블을 준비하고 있는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향후 버블 국면이 발생하면 텔레그램을 통해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보유입니다.

=====

### ♣♣♣2020년06월호

=>비트컴퓨터는 실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확장성을 보고 접근하는 종목입니다.

=>미국의 텔라닥은 적자회사인데도 원격의료를 하고, 주가가 3년간 10배가 올랐습니다.

=>따라서, '비트컴퓨터의 올해 실적이 지난해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괜찮을까?'란 질문은 영화 <올드보이>의 "처음부터 틀린 질문을 하니깐, 맞는 대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는 대사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주도주-기아차 시세 분석



=>기아차의 2008년 하반기~2009년 상반기 차트입니다. 당시에는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지수가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지만, 이번에는 의료 시스템의 위기로 그때와 다르고, 지수가 쌍바닥을 찍지 않고 올라간다고 했었죠?

=>아무튼 당시 지수가 쌍바닥을 찍고 반등했듯이, 기아차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쌍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주도주는 저기가 무릎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고점처럼 보일 겁니다. 지금 저 자리에 있는 주도주들이 여러분 포트에 담겨

있을 겁니다. 3월 코로나 위기 이후 주도주는 저 자리에서 사야 됩니다. 이번 2년 주도주는 이미 이전 위기를 회복을 했어야 정상입니다.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종목은 이번 주도주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는 주가가 높아 보일 겁니다.



=>그다음 주가가 한 달 반동안 횡보합니다. 반도체 섹터에서도 대장주들은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투자자에 익숙한 분들은 지루하다고 저 자리에서 팔아버립니다.



=>저 고비를 넘겨야 주도주의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됩니다.



=>당시에도 지수는 여름에 2달 반동안 쉬었죠? 이번에 지수를 2,800 포인트까지 끌고갈 대형주는 삼성SDI,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입니다.

=>비트컴퓨터는 이 궤도를 맞춰가면서 상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기아차 차트를 보면, 그렇게 한 단계 레벨업이 된 이후에는 주가가 또 5개월을 횡보합니다.

=>주도주라고 매일 오르는게 아니라, 이러한 리듬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도주가 맨날 오르냐구...



=>5개월을 횡보한 뒤, 다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이후 2010년 4월에 한 달을 또 쉰 다음에 6월~8월까지 3개월을 또 쉽니다.



=>아무튼 주가가 일직선으로 쭉 상승한 것처럼 보여도 몇 달을 쉬면서 움직이는 그 리듬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비트컴퓨터도 1차 상승 이후 5월 중순부터 쉬고 있죠? 그 리듬으로 보입니다.

=>보통 주도주는 40일선, 60일선을 휘감으면서 추세를 만들어갑니다.

=>비트컴퓨터도 이런 리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포스트 코로나 대장주가 맞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레포트로 편입된 종목들을 차트로만 보면, '주가가 너무 높은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 ♣기업 분석

=>향후 5G 인프라가 구축되고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에 사물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현재의 높은 시장 성장세는 지속될 것입니다.



=>5G섹터는 약세장의 주도 섹터로 이미 대장주인 케이엠더블유가 대 상투를 쳤기 때문에, 5G섹터 전체를 매도하고 비트컴퓨터와 같은 <디 지털 헬스케어>로 비중을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2,000원 이하 매 수)

=>이번에 한국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전 세계에 널 리 알렸지만, 아직 갈 길이 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의료서 비스> 최강국으로 나아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려면 <원격 의 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지털혁신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 한 산업 영역으로 뽑히는 곳이 바로 <의료서비스>영역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동안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과 이해관계 등으로 번번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원격의료 서비스>의 필요성 과 그 수요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정책을 논할 때 <원격의 료>는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이번에 빛을 본 이유는 IT인프라 때문입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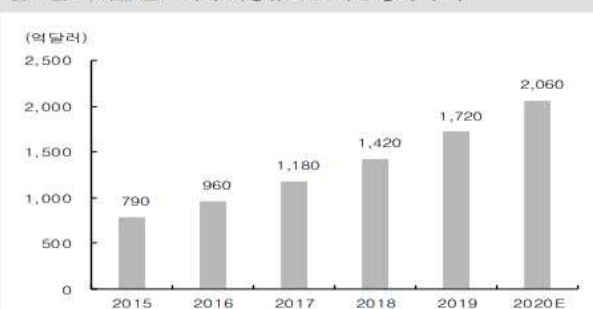
=>그러나 여전히 비트컴퓨터와 같은 의료서비스 관련 기업들은 규제 로 인해 시장의 성장이 제한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원격의료>시장이 바로 개화되진 않을 겁니다. 계단식으로 성장한 다면 1등기업 비트컴퓨터의 주가도 추세를 타고 우상향할 전망입니다.

=>관련 섹터 종목들로는 비트컴퓨터(대장주), 유비케어, 케어랩스, 인 성정보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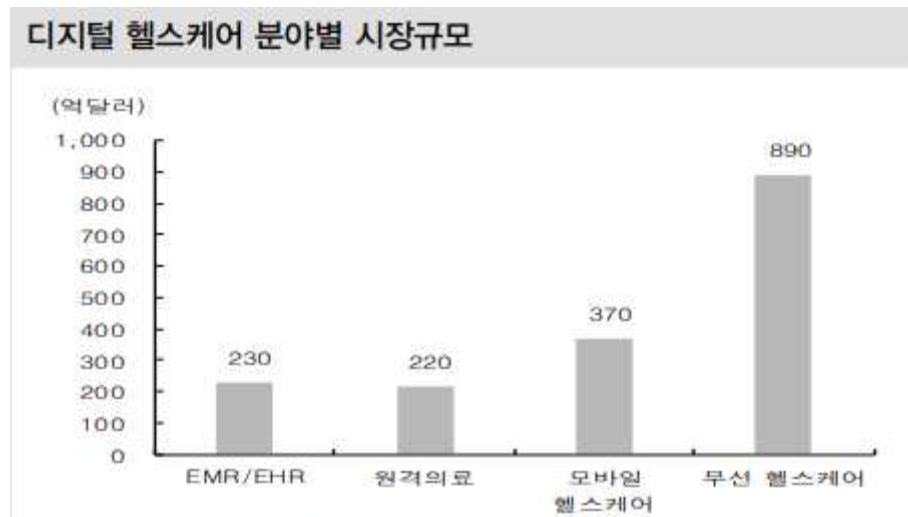
=>비트컴퓨터 상투에서 매도할 때, 그 외 다른 종목들도 같이 매도하 면 됩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매년 증가 추이



자료: Statis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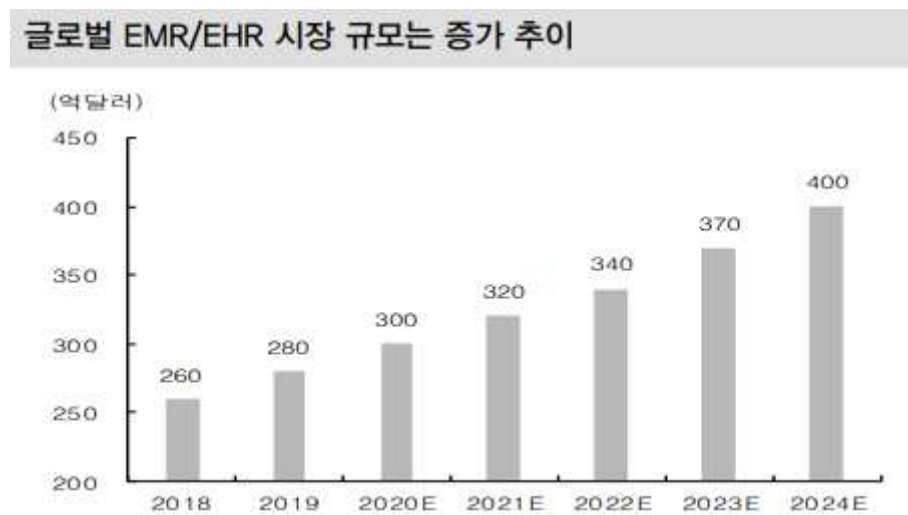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720억달러 규모로 2015년 이후 117.7% 성장을 하였습니다.



자료: Statis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BK투자증권

=>이중 비트컴퓨터가 하고 있는 사업인 EMR, EHR, 원격의료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모바일, 무선 헬스케어에 비해 그동안 성장폭이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헬스케어 시장은 다른 산업과 달리 전문인력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시장 경제 논리로 시장이 발전하기 보다는 국가, 지역별 정치 성향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진화하고 발전해 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료: Statis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BK투자증권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2025년이 되면 지금보다 약 2배 이

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IT인프라 선진국(미국/유럽/일본/한국 등)의 EM R 도입률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비트컴퓨터와 같은 회사를 통해 계속해서 고도화 투자(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사들의 반발과 규제로 인해 막혀있었는데 코로나는 비대면 서비스 중에서도 의료서비스의 필요성과 시장 수요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격의료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시장경제 본연의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데, 아직은 관련 인프라가 없는 상황이며 각종 규제로 인해 인프라 투자가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등으로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의료인들 간에 의료지식이나 기술적 원격으로 소통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원칙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이나 처방을 내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정책사업 히스토리

시행년도	추진내용
1988	서울대병원 - 연천보건소 간 원격영상 진단 시범사업 실시(국내 최초)
2000	강원도 16개 시/군 보건진료소 의사 -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2002	의사 - 의료인 간 원격의료 제도 도입(02.3.30 의료법 개정)
2005.09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의사 - 의료인 간 원격의료 도입(법무부)
2007.10	격오지 부대 장병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국방부)
2008.09	산간/도서(서산, 보령, 영양, 강릉)지역 원격의료 시범사업(행정자치부)
2009.02	독도경비대 - 경찰병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도입(경찰청)
2010.04~2013.03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산업통상자원부)
2014.09~2015.03	고혈압, 당뇨 재진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 및 진료 시범사업(보건복지부)
2015.04~2016.03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 및 진료 시범사업(보건복지부)
2016.04~2016.12	경증, 만성질환자 등 대상 의사 - 의료인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보건복지부)
2017.01~2017.12	경증, 만성질환자 의료취약지/취약계층 대상 의사 -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1~현재	의료취약지/취약계층 주민 대상 의사 -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지속 추진

=>2000년 초부터 여러 차례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진행되었으나 매번 의료계와의 충돌로 인해 실제 산업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의료계는 원격진료가 허용될 경우,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으로써 의료 대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펼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밥그릇과 연관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의 확산되고 있는 부분(미국은 전체 진료의 약 10%~20%가 원격진료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에 대해서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로 의미를 축소하고 한국과 같은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가 완화되면 원격医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생기고, 비윤리적인 진료행태에 대한 우려, 지역 중소형 병원 붕괴 등 기존의 의료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논리근거 by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 대상	예상되는 상황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개념이 모호하여 다수의 환자가 만성질환자로 둔갑할 것(code creeping), 의사들간 윤리적 다툼 발생 예상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의미가 모호하여 거동이 어렵다는 환자 급증할 것
의료기관까지 거리가(병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도서벽지 거주자	도서벽지 거주자 확인 불가, 악용 따를 것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	현재도 지켜지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결국 모호한 규정은 악용될 것

=>‘원격의료’가 시행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비트컴퓨터의 투자에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원격의료’에 대한 트렌드(추세)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비트컴퓨터에게 원격의료는 얼굴마담격 모멘텀이고, 실질적인 모멘텀은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인프라/빅데이터(의료 빅데이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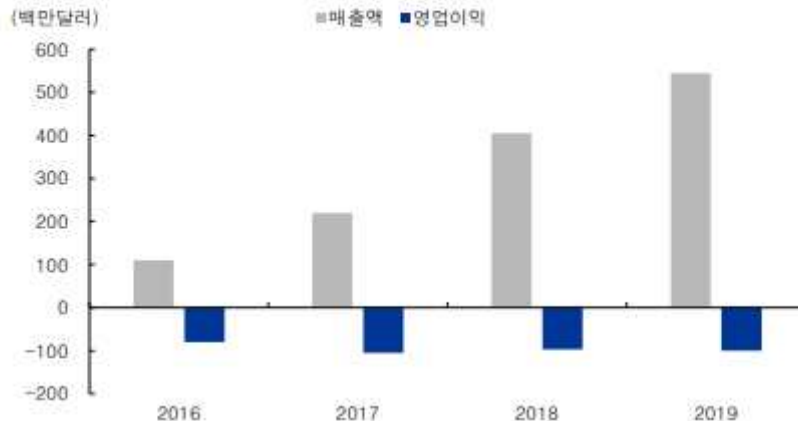
=>중국의 원격의료 시장은 매년 40%이상 급성장을 하고 있고, 대표 기업으로는 <핑안헬스케어텍>이 있고, 2015년 원격의료 및 모바일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인 <핑안굿닥터>(홍콩시장 상장)를 출시하며 모바일 의료시장에서 선도기업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텔라닥>이나 중국의 <핑안굿닥터>나 매출액은 빠르게 성

장하고 있으나 아직 손익은 맞추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트컴퓨터의 실적을 가지고, '당장 순이익을 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 원격의료 업체 Teladoc Health의 실적 추이



=>비트컴퓨터도 앞으로 한국에 새롭게 열리는 원격의료 시장을 감안하면 매출액은 큰폭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의료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해서 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중소형 병의원에 이미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중대형 병원을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사의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은 <클레머>입니다.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의료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자체 서버, 네트워크 형태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최근 트렌드입니다.

=>따라서 동사는 빅데이터(의료)/클라우드/원격의료/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최근 트렌드와 부합하는 정말 다양한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 ♣기술적분석

=>다음은 시장의 확장성을 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주가위치 분석 시스템입니다.



=>비트컴퓨터는 5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주가위치 공식에 따르면 회색선에 잘 눌려났죠? 다시 갑니다.



=>미국의 <텔라닥> 차트입니다.

재무 항목	2019-12-31	2018-12-31	2017-12-31	2016-12-31	2015-12-31
매출	553	417	233	123	77
총 수익	553	417	233	123	77
총 수익 비용	184	128	61	31	21
매출총이익	368	289	171	91	56
총 판매관리비용	339	265	180	116	93
연구 및 개발	64	54	34	21	14
감가상각비	38	35	19	8	4
비정상 비용(수익)	6	4	27	0	0
총 영업 비용	633	488	322	194	133
영업이익	-80	-70	-89	-71	-55
세전순이익	-109	-96	-107	-73	-57
법인세비용충당금	-10	0	10	0	0
세후순이익	-98	-97	-117	-74	-56

=>시장의 확장성 때문에 매출은 계속 증가하지만 영업이익, 순이익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근데도 주가는 우상향합니다.

=>근데 비트컴퓨터는 흑자를 내는 기업입니다.



=>중국의 <평안굿닥터>입니다.

재무 항목	2019-12-31	2018-12-31	2017-12-31	2016-12-31	2015-12-31
매출	5,065	3,337	1,868	601	278
총 수익	5,065	3,337	1,868	601	278
총 수익 비용	3,894	2,425	1,255	347	167
매출총이익	1,171	911	612	253	110
총 판매관리비용	2,281	2,233	1,434	1,242	430
비정상 비용(수익)	-11	1	19	0	0
기타영업비용	-41	-19	-13	-8	4
총 영업 비용	6,024	4,447	2,864	1,341	601
영업이익	-959	-1,109	-996	-740	-323
기타	0	0	0	0	0
세전순이익	-734	-911	-1,001	-758	-323
법인세비용충당금	12	1	0	0	0
세후순이익	-746	-913	-1,001	-758	-323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은 시장의 확장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 순이익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적자 기업인데 주가는 꾸역꾸역 계속 오르죠? 이겁니다.

=>비트컴퓨터에 투자하는 세력은, '앞으로 비트컴퓨터의 매출도 이런

식으로 증가하겠구나. 근데 이 기업은 또 흑자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컴퓨터는 신규매수 기회를 안 줄 것이라고 봤는데, 최근 5주 조정을 받으면서 신규매수/추가매수 기회를 모두 주고 있습니다.

-끝

※월간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